

몰라, 여자야

김명자/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공직생활을 하는 후배가 업무상 일이 있어 모회사 홍보실에 전화를 했다. 일의 사안을 이야기하면서 궁금사항을 물으려니 전화를 받은

홍보실 직원은 담당자를 바꿨다며 잠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담당자는 좀체로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내려 놓았던 전화를 다시 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무슨 무슨 사항을 묻는다며 마구 떠들어대는 것이 전화 수화기를 통해 들렸다. 누군가 누구냐고 물으니 '몰라, 여자야'라며 그야말로 희희낙락거리는 것이었다. 한참만에야 누군가 전화를 들었는데 현재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소상한 내용을 여기에 모두 말할 수는 없지만 참다 못한 후배는 급기야 담당의 책임자를 찾게 되었고 '바른말'을 했다.

홍보실이라면 그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이를테면 간판격이다. 그런 곳에서조차 전화받는 매너가 그 정도라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그 이전 그들의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자가 전화를 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자가 '그처럼 어려운 사항'을 물어와 '가소롭다'고 생각한 것일까. 여자는 전문직을 가졌다 해도 그저 '여자'로 보려는 것은 바로 남자들의 독선이다. 언젠가 여성 운전자를 테마로 한 텔레비전 프로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리포터와 한 영업용 승용차 운전

자와의 인터뷰에서 '여자한테 왜 면허를 주느냐'며 항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연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승용차를 몰고 나가면 욕하고 난폭운전으로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초보의 미숙한 운전자는 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운전 미숙'하면 늘상 여자들이 매도된다.

최근 목포행 비행기 사고 때만 해도 그렇다. 여자들만 다친 것도 아니건만 텔레비전에서는 구태여 흉하게 쓰러져 있는 여자들만 몇 차례나 반복하여 내보냈다. 더욱이 헬리콥터에 매달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여자의 속옷까지 클로즈업하여 보여주는 저의(底意)는 무엇인가. 심지어 비행기에 여자들이 많이 탄 것조차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려 한다. 일이 있으면 여자도 비행기 탈 수 있고 또 여자들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일이 있다.

후배가 그런 일이 있는 후 어느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 성질 되게 못됐다'는 게 골자였다. 여자의 바른 말은 어느새 '못된 성질'로 둔갑하는 것이다. 공자님은 우리의 오랜 생활방식과 사고를 지배했던 유학을 통해 인간평등을 말씀하셨다. 그 속에는 당연히 사고의 유연성과 평등을 내포한다. '여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한다는 생각'을 할 때 참다운 평등도 있다.

성인 남녀 노래방 이용률



〈자료=한국갤럽조사연구소, 그림=김치덕 기자〉

“노래방 가본적 있다” 51%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이상이 노래방을 한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최근 전국 20살 이상 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노래방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1.2%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래방 이용은 여자(40.3%)보다는 남자(62.4%)가 많았으며 나이가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애창곡은 〈소양강처녀〉 〈만남〉 〈눈물젖은 두만강〉 〈울고 넘는 박달재〉 〈칠갑산〉 차례였다.